<고난과 하나님의 선교>

- 선교적 해석학으로 본 고난의 의미 경기서부 양혜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을 놔두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지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 더욱 괴로워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된다. 이 책은 고난을, 하나님은 십자가 밖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고통 안으로 들어가셔서 인간의 고통과 함께, 인간의 고통을 통해 고난당하셨다는 십자가의 해석학을 넘어, 선교적 해석학을 탐구하고 더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선교적 해석학을 "삼위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의 온 우주에서의 무한한 확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 즉 도덕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도덕적 탁월성을 받아들이고 반영하며 확장시킬 수 있는 존재에 일어나는 확장"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사랑과 고난은 공존할 수 없어 보인다. 사랑은 고난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지 고난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 안에서 사랑과 고난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하는 쌍두마차와 같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사랑공동체의 무한한 확장'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그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내재된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찬양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그 자체로 승리한다. 우리의 고난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무한히 확장한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다보면 고난과 박해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소망은 영원한 저 천국에 있고 나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친밀함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진리에 위로를 얻는다. 그리고 나는 죄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대사로 파송 받았음을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들의 고통과 연약함을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선교지이다. 그 곳이 어디든 간에 그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고난에 관한 선교적 해석, 고별설교가 보여 주는 예수와 제자들의 사명과 고난,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고난 중 선교에 대한 주제를 선교적 성경해석학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선교적 해석학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이야기 안에서 고난이 차지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고난은 필수이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맛보시고 이기셨기에, 나 또한 고난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라는 보다 넓은 시야로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음에 감사드린다.